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40년 이상 쌓아온 +90 이상의 퀄리티’

마르케스 데 까사 콘차 블루

MARQUES DE CASA CONCHA BLUE

지역	칠레 > 센트럴 밸리 > 카차포알 밸리		
포도품종	까르미네르 90% 까베르네 소비뇽 10%		
알코올	14.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가넷빛 레드 컬러로 야생 베리, 말린 꽃, 블랙 페퍼와 같은 스파이시한 향신료와 함께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바닐라 뉘앙스가 뒤따른다. 라운드하고 부드러운 탄닌과 함께 구조감이 좋은 와인으로 전체적인 와인의 질감과 잘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긴 여운을 남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 붉은 살 생선 / 단단한 치즈 / 훈제, 염장 음식 / 밀가루 음식 (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칠레 프리미엄화에 앞장서는 최고의 빈야드에서 평균 수령 25년~30년 올드바인에서 만들어진 마르케스 데 까사 콘차 프리미엄 라인이다. 칠레의 대표 품종인 카르미네르의 최고급 산지 페우모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오랜 양조 철학과 노하우를 지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클래식한 프리미엄 와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마르케스 데 까사콘차 와인은 1718년,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프 5세가 콘차이토로 가문에게 수여한 작위명으로 콘차이토로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의 유산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1972 빈티지의 마르케스 데 까사콘차 까베르네 소비뇽을 런칭하면서 싱글빈야드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저가 대중적 와인산지로 여겼던 칠레 페루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마르케스 데 까사콘차는 칠레 건국 200주년 기념식에서 건배주로 사용된 바 있으며, 2012년 '서울 해안보 정상회의'의 공식 리셉션주로 선정되면서 클래식한 선물와인이자, '대통령의 와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까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